



2020 ISSUE REPORT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0-지역이슈-5(2020.09)

한·러 수교 30년과 경제협력-2: 교역 협력



CONTENTS

- I.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현황
- II. 한·러 교역의 주요 수출입품목
- III. 러시아 대외교역의 특징
- IV. 한·러 교역 확대 방안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5-5759)

ykj@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요 약>

- 한·러 교역의 증대에 따라 2019년 러시아는 한국의 9대 교역국으로 부상
 - 양국의 교역 규모는 교역 첫해인 1992년 1억 93만 달러에서 2007년에는 100억 달러, 2011년에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19년에는 224억 달러로 늘어남. 이에 따라 러시아는 1999년 한국의 23대 교역국, 2009년 14대 교역국에서 2019년에는 9대 교역국으로 부상함.
 - **2019년 기준 대러시아 교역은 한국 전체 교역의 약 2.1%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수출 비중은 한국 전체 수출의 1.4%이나, 수입 비중은 2.9%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증가에 따라 상품수지는 2009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44.3%, 수입에서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가 60%의 비중을 각각 점유함.
 - 대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 비중은 2009년 28%에서 2019년 44.3%로 크게 상승함. 이 가운데 자동차의 비중은 2009년의 20.3%에서 2019년에는 29.3%로, 자동차 부품의 비중은 2009년의 7.7%에서 2019년 15.0%로 상승하였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외에는 합성수지(4.1%), 건설중장비(3.3%), 비누·치약 및 화장품(2.7%), 철강판(2.7%) 등이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음.
-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전체 교역의 16.5% 비중 점유
 - 러시아의 수출에서는 에너지 수입규모가 큰 중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의 수출규모가 큰 중국, 독일이 높은 비중을 점유함.
 -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으로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속, 기계 및 운송수단, 화학제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의 수입에서는 기계 및 운송수단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화학제품, 농산물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러 교역 확대 방안
 - 한국은 제조업 제품 위주의 수출을 하고, 러시아는 원자재 위주의 수출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교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최근 화장품, 건설장비,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수출품목이 다각화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유망 제조업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러 양국이 논의 중인 서비스·투자 FTA 및 한·EAEU FTA 체결을 통해 러시아 및 EAEU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음.
 - 에너지 수입노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국과 동북아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러시아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LNG 등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향후 개방이 예상되는 러시아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통한 수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I.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현황

2019년 러시아는 한국의 9대 교역국으로 부상

- 러시아는 2019년 기준 한국의 9번째 교역상대국으로 한국 교역의 약 2.1%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러시아는 1999년 한국의 23대 교역국, 2009년 한국의 14대 교역국이며,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9대 교역국으로 부상함.
- 수출 비중은 한국 전체 수출의 1.4% 비중으로 14번째 수출상대국이며, 수입 비중은 2.9%를 기록하며 9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한국의 10대 교역국 (2019년)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교역 규모	수출	수입	상품수지	교역 비중 (단위: %)
1	중국 (홍콩)	2,434 (337)	1,362 (319)	1,072 (18)	290 (301)	23.3 (3.2)
2	미국	1,352	733	619	114	12.9
3	일본	760	284	476	-192	7.3
4	베트남	693	482	211	271	6.6
5	대만	314	157	157	0	3.0
6	독일	286	87	199	-112	2.7
7	호주	285	79	206	-127	2.7
8	사우디아라비아	255	37	218	-181	2.4
9	러시아	224	78	146	-68	2.1
10	인도	207	151	56	9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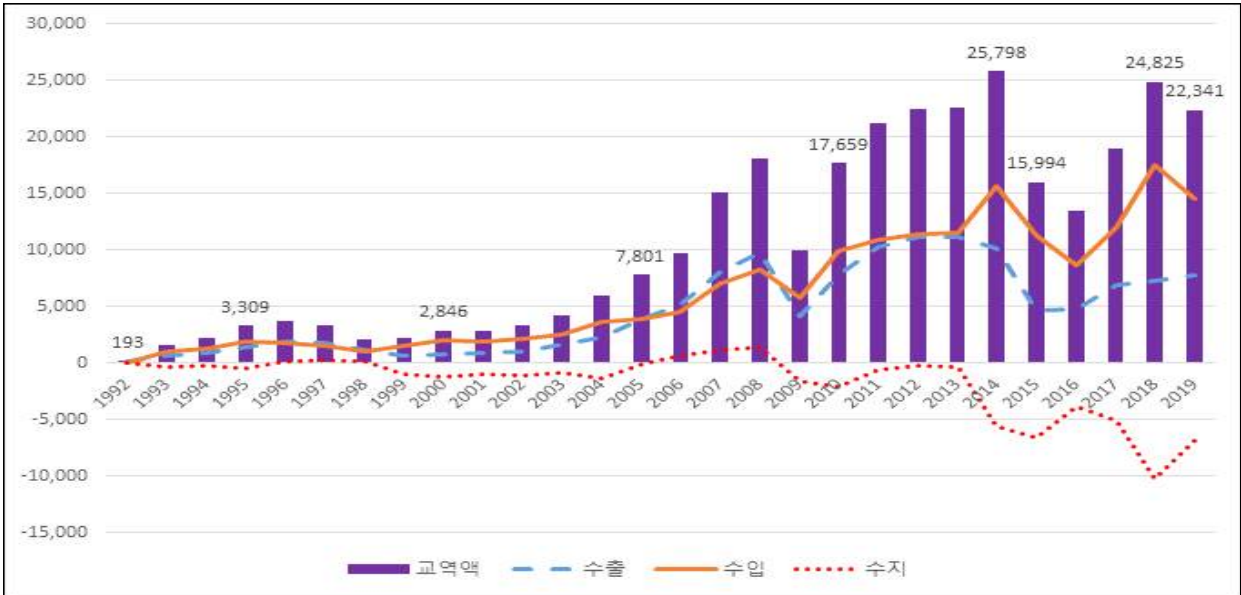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러 간 교역 규모는 양국 교역 첫해인 1992년 1억 93만 달러에서 이듬해인 1993년 15억 7,600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2019년에는 224억 달러로 늘어남.
-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07년 100억 달러,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14년에는 약 260억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양국 교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으로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국제유가가 하락한 2015~17년에는 100억 달러대로 감소하였으나 2018~19년 다시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음.



[그림 1] 한국의 대 러시아 교역(1992~2019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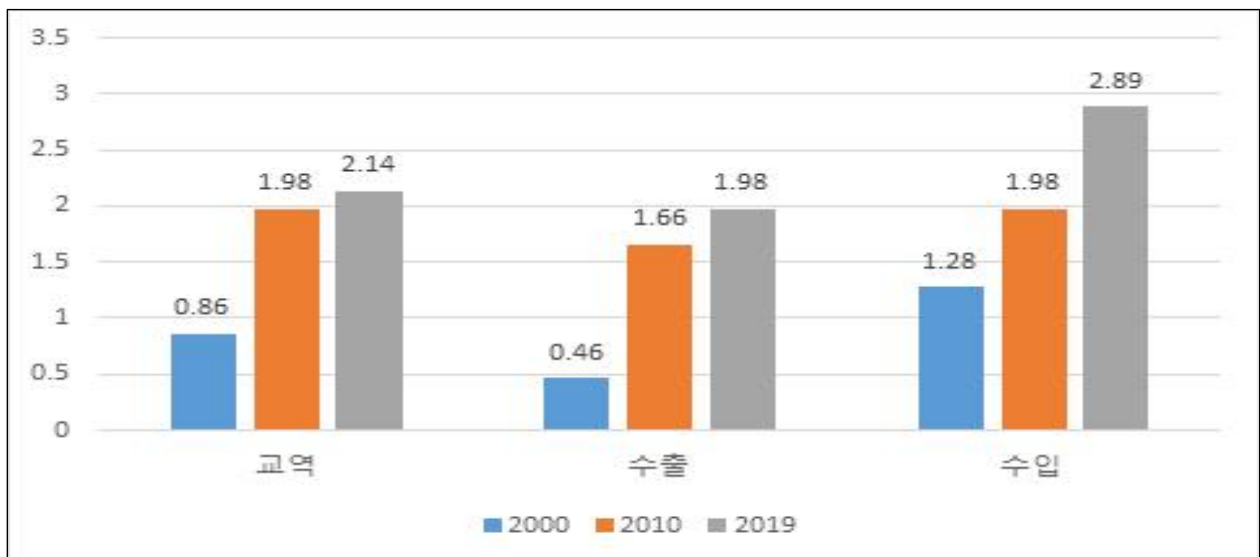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와의 교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교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상승 추세임.
- 한국의 교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992년 0.12%, 2000년 0.86%에서 2010년에는 1.98%, 2019년에는 2.1%로 상승하였음.
- 2019년 기준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전체의 1.98%, 대러 수입 비중은 전체의 2.89%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수출입의 비중은 아래의 [그림 2]에서와 같이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2] 한국의 교역에서 러시아의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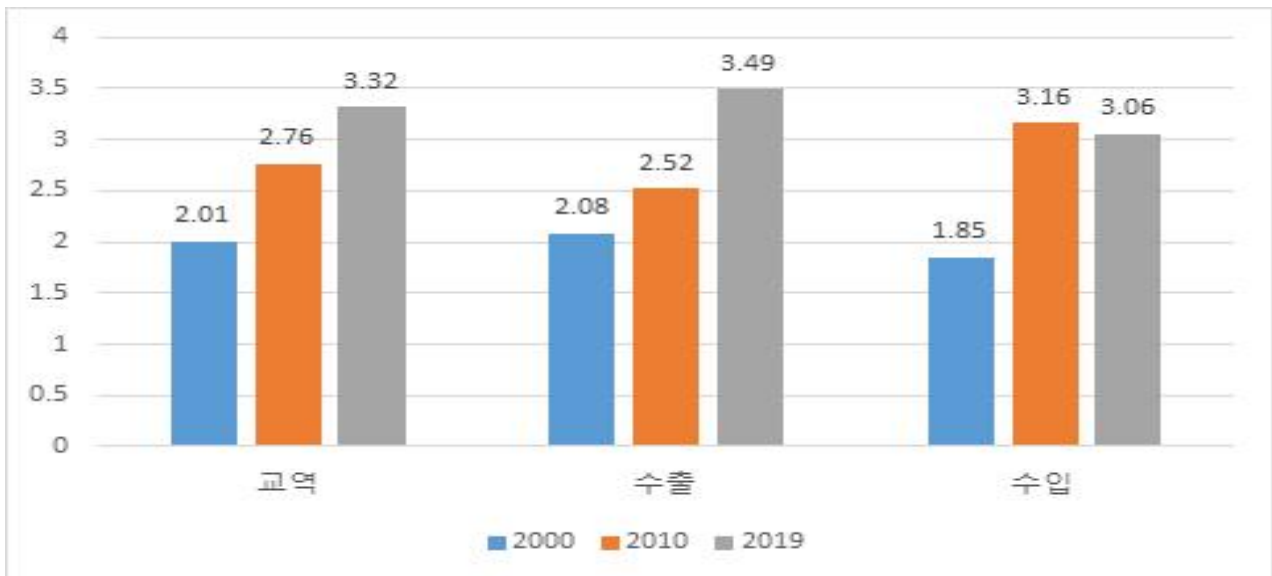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은 2019년 기준 러시아의 7번째 교역국임. 러시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중은 3.32%를 기록하였는데, 이 비중은 2000년 2.01%, 2010년 2.76%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
- [그림 3]에서와 같이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대한민국 수출이 대한민국 수입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2014년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에 따라 러시아의 전체 수입에서 대한민국 수입이 점유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음.

[그림 3] 러시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러시아통계청 및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증대에 따라 최근 한국의 상품수지 적자 지속

- 한·러 간 교역은 2009년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 증가에 따라 한국이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2018년에는 약 102억 달러의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부터 한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시작되면서 전체 대러시아 수입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으며(수입액은 2009년 57.8억 달러에서 2010년 98.9억 달러로 증가), 한국은 국제유가 하락 시기인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대러 수입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5년 이후 러시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규모가 감소하였음. 수출액은 2015년에 전년 대비 절반 이상(53.7%) 급격히 줄어든 이후, 지난해까지 2014년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II. 한·러 교역의 주요 수출입품목

1.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의 특징

대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 점유

- 대러시아 수출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1, 2위 수출 품목으로 이 품목들의 금액과 수출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
- 대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 비중은 2009년 28%에서 2019년 44.3%로 크게 상승함. 이 가운데 자동차의 비중은 2009년 20.3%에서 2019년에는 29.3%로, 자동차 부품의 비중은 2009년 7.7%에서 2019년 15.0%로 상승하였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외에는 합성수지(4.1%), 건설중장비(3.3%), 비누치약 및 화장품(2.7%), 철강판(2.7%) 등이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음.
- 기타 수출품목에서는 비누·치약 및 화장품, 건설중장비, 철강판, 타이어 등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음.
- 특히, 비누·치약 및 화장품은 대러시아 수출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2009년 0.1%, 2014년 0.4%에서 2019년 2.7%로 급격히 상승하고 금액도 크게 증가함.
- 반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냉장고 등의 수출 비중은 크게 하락하여 20대 주요 수출 품목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2009년 전체 대러시아 수출의 8.7%에서 2014년 1.9%, 2019년 0.6%로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표 2]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의 금액 및 비중(MTI 3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	2009		2014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자동차	852	20.3	2,670	26.4	2,274	29.3
2	자동차 부품	324	7.7	1,388	13.7	1,168	15.0
3	합성수지	292	7.0	417	4.1	321	4.1
4	건설중장비	45	1.1	310	3.1	260	3.3
5	비누·치약 및 화장품	5	0.1	39	0.4	213	2.7
6	철강판	53	1.3	227	2.2	211	2.7
7	선박해양구조 물 및 부품	288	6.9	861	8.5	19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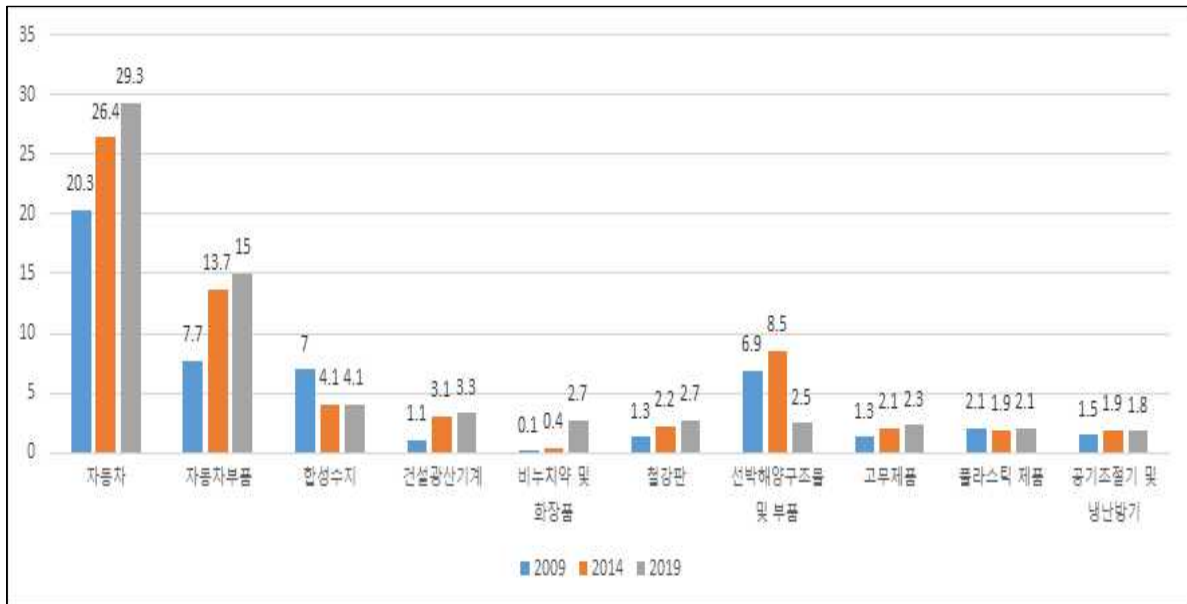


8	타이어	55	1.3	208	2.1	176	2.3
9	플라스틱 제품	90	2.1	191	1.9	164	2.1
10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62	1.5	199	2.0	137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의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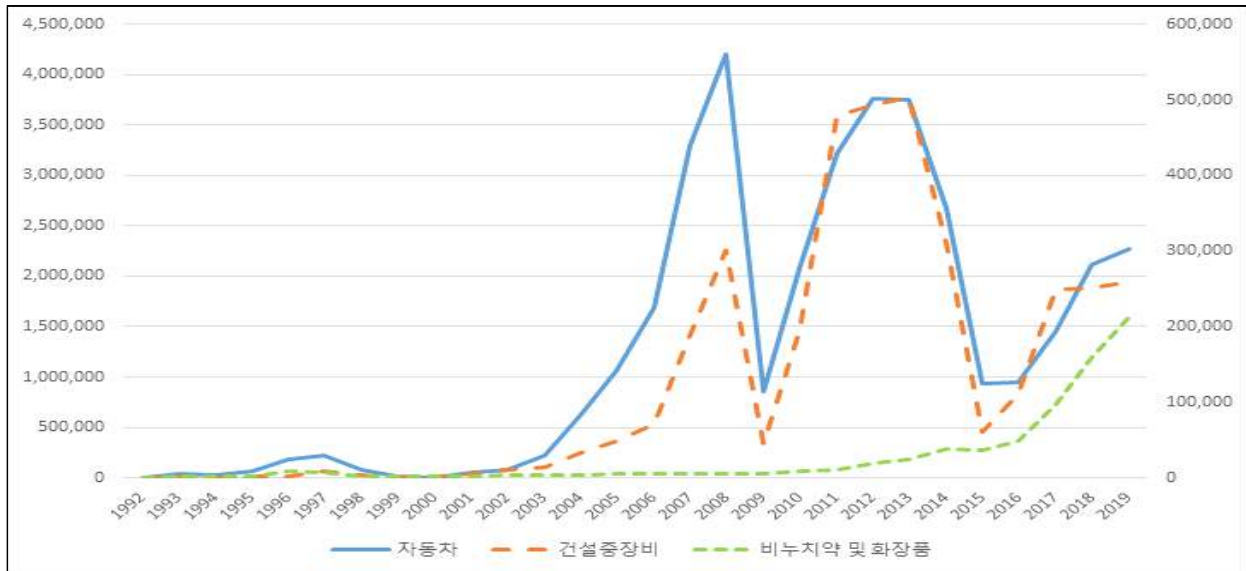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의 높은 비중은 러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자동차 선호 추세에 따른 것이며, 비누치약 및 화장품은 한류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그림 5]와 같이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건설광산기계의 수출 규모는 러시아 경제의 동향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2014~15년 유가하락으로 인한 러시아 경기 둔화기에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비누치약 및 화장품은 이러한 경기 동향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있음.



[그림 5]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의 수출 동향(왼쪽 축: 자동차, 오른쪽 축: 건설중장비, 비누·치약 및 화장품)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이외에 타이어,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가구, 원동기 및 펌프, 석유제품 등이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20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음.

[표 3] 한국의 대러시아 20대 수출품목의 변동 및 비중(MTI 3단위 기준)

	2009년		2014년		2019년	
1	자동차	20.3%	자동차	26.4%	자동차	29.3%
2	무선통신기기	8.7%	자동차부품	13.7%	자동차부품	15.0%
3	자동차부품	7.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8.5%	합성수지	4.1%
4	합성수지	7.0%	합성수지	4.1%	건설광산기계	3.3%
5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9%	영상기기	3.5%	비누·치약 및 화장품	2.7%
6	영상기기	5.1%	건설광산기계	3.1%	철강판	2.7%
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7%	철강판	2.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5%
8	기호식품	2.8%	고무제품	2.1%	고무제품	2.3%



9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2.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0%	플라스틱 제품	2.1%
10	플라스틱 제품	2.1%	무선통신기기	1.9%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8%
11	석유제품	1.8%	플라스틱 제품	1.9%	전자응용기기	1.7%
1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5%	전자응용기기	1.2%	산업용 전기기기	1.5%
13	컴퓨터	1.4%	원동기 및 펌프	1.2%	가구	1.4%
14	고무제품	1.3%	운반하역기계	1.1%	원동기 및 펌프	1.4%
15	철강판	1.3%	석유제품	1.1%	석유제품	1.2%
16	전자응용기기	1.3%	금형	1.1%	정밀화학원료	1.2%
17	냉장고	1.2%	기호식품	1.0%	섬유 및 화학기계	1.0%
18	정밀화학원료	1.2%	냉장고	1.0%	종이제품	1.0%
19	종이제품	1.1%	우주선 및 부품	1.0%	조명기기	1.0%
20	건설광산기계	1.1%	금속공작기계	0.9%	반도체	1.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음영표시: 2014년 대비 2019년에 20대 수출 품목 추가)



[Box 1] 러시아 자동차 시장 동향

- 2019년 기준 한국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기아자동차 12.8%, 현대자동차 10.2%로 러시아의 라다(LADA) 자동차를 뒤이어 2, 3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2009년 한국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인 10.7%에서 약 2배 가량 상승한 비중임.
- 2020년 1~7월에도 한국의 기아·현대 자동차의 신차 판매 비중은 25.4%로 러시아산 자동차의 판매 비중인 22%를 상회하며 국가별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또한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외국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기아의 리오와 현대의 크레타 모델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현대 쉐라리스가 4위, 기아 스포티지가 8위를 기록하였음.¹⁾

[표 4] 러시아의 브랜드별 신차 판매 비중(2009년, 2019년)

단위: %

점유율 순위	2009		2019	
	기업	비중	기업	비중
1	라다	23.8	라다	20.6
2	쉐보레	7.1	기아	12.8
3	포드	5.6	현대	10.2
4	현대	5.1	르노	8.2
5	르노	4.9	폭스바겐	5.9
6	기아	4.8	토요타	5.9
7	토요타	4.7	스코다	5.0
8	니산	4.4	니산	3.7
9	가즈	4.0	가즈	3.6
10	UZ 대우	3.5	벤츠	2.4

자료: <https://www.autostat.ru/infographics/42526/>

- 한국산 자동차들의 러시아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은 2010년에 준공된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의 현지 생산에 따른 지원 정책(자동차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 등)과 유럽·일본산 자동차 대비 가격, 품질에서 소비자들의 기호 충족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현대자동차는 201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생산규모 연 15만대의 자동차 공장(현재 연 20만대 생산 능력²⁾)을 건설하여 소형 SUV 크레타, 쉐라리스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생산규모 연 10만대의 GM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였음.³⁾

1) <https://www.autonews.ru> 2020년 8월 26일.

2)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에는 2,24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2백만 m²의 규모의 공장에서 크레타(소형



-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⁴⁾를 평가한 결과 대러시아 수출 10대 품목에 포함되는 자동차, 화장품, 아연도금강판 등 상품들의 러시아 시장에서의 비교우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은 자동차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편, 화장품, 건설장비, 가구(의자) 등의 제품들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향후에도 이 품목들의 러시아 수출이 유망한 것으로 전망됨.

[표 4]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의 CA 지수(HS 4단위 기준)

순위	HS 단위	품목	CA 지수		
			2010	2015	2019
1	8703	자동차	4.86	5.39	8.91
2	8708	자동차 부품	4.00	5.73	3.94
3	3304	화장품	0.20	1.24	4.60
4	8429	불도저 등 건설기계	3.17	1.33	2.88
5	4011	타이어	1.80	2.29	2.25
6	7210	아연도금강판	1.60	4.20	4.50
7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 등	-	-	3.20
8	3901	에틸렌 중합체	2.75	4.20	3.00
9	9401	의자(침대겸용 포함)	0.50	3.25	3.50
10	2710	석유제품	1.67	3.17	3.00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의 특징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품목

SUV)와 쏘라리스 등 두 개의 차종을 생산하고 있음. <https://www.hyundai.com>

3) 2008년 건설된 GM 공장은 러시아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으로 2015년 가동을 중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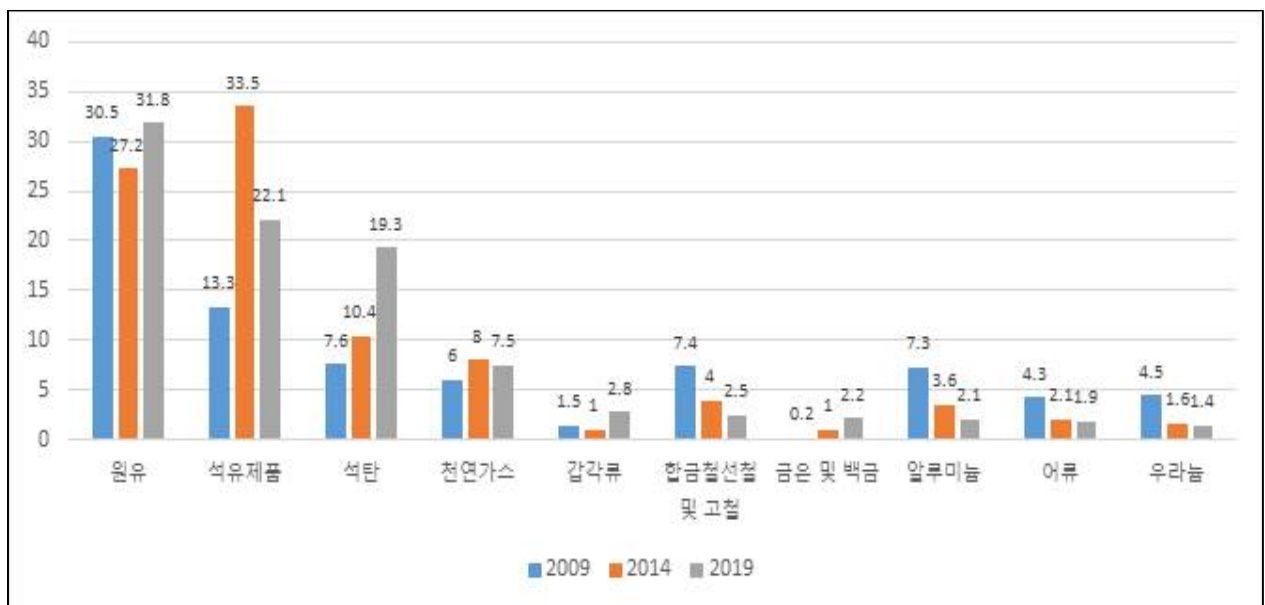
4)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는 $(RX_i/RX)/(RE_i/RE)$ 로 산출됨. 여기서 RX_i 는 특정국의 상대국에 대한 i 품목의 수출액, RX 는 특정국의 상대국에 대한 총수출액, RE_i 는 상대국의 i 품목 수입액, RE 는 상대국의 총수입액임. CA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품목이 상대국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며, 1 이상이면 해당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은 원자재가 대부분으로, 에너지와 광물 제품이 상위 10대 주요 품목 가운데 8개를 점유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원유, 석유제품, 석탄, 천연가스 등의 4대 주요 에너지 품목의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의 약 80%에 달하고 있음. 이 4대 품목의 비중은 2009년 57.4%에서 2019년 80.7%로 상승하여, 대러시아 수입 품목이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이외에도 국내 소비가 많은 대게 등의 갑각류와 명태 등 어류가 10대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음.

[그림 6] 한국의 대러시아 품목별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품목이 대러시아 전체 수입의 약 60% 점유

- 한국은 1990년 러시아와 수교 이후 1993년부터 러시아산 원유와 석탄을 수입하였고, 2009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하였음. 최근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자원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음.
- 2019년 기준 원유, 천연가스, 석탄의 3대 주요 에너지 자원 수입이 러시아로부터의 전체 상품수입에서 약 60%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수입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상품수입액에서 3대 주요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액의 비중이 40%를 상회하였으며, 2019년에는 58.6%를 기록하였음. 2019년 기준 3대 에너지 품목의 대러시아 수입 비중은 원유 31.8%, 석탄 19.3%, 천연가스 7.5%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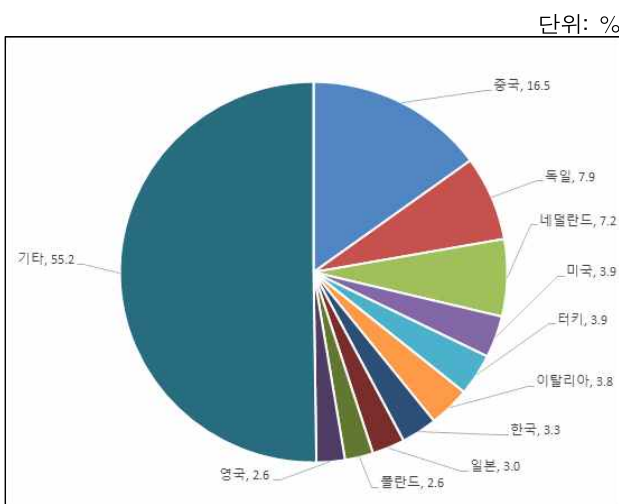
- 한국의 전체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비중 증가 추세
- [원유] 한국의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은 1993년 0.4%에서 2019년 6.6%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 [천연가스(LNG)]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은 2009년 2.5%에서 2019년 5.3%로 상승하였으며, 2015년에는 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 [석탄] 한국의 석탄 수입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은 1993년 1.7%에서 2019년 19.7%로 급격히 상승하여 러시아는 오스트레일리아(40.4%)에 이어 한국의 2번째 석탄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함.

Ⅲ. 러시아 대외교역의 특징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교역의 16.5%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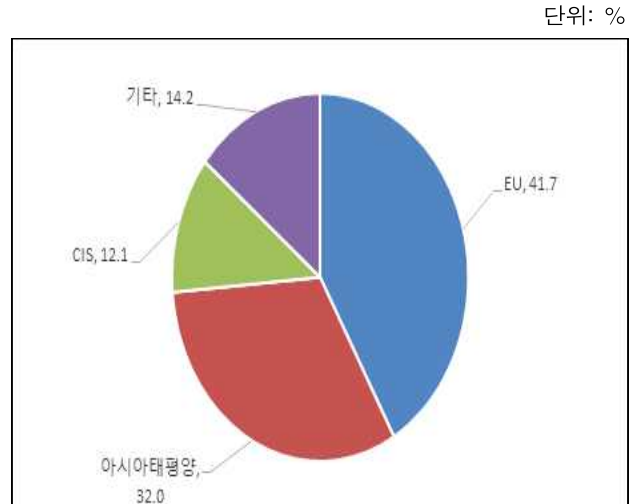
-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러시아의 수출의 13.4%, 수입의 22.2%를 점유하고 있음.
- 러시아의 수출에서는 에너지 수입규모가 큰 중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의 수출규모가 큰 중국, 독일이 높은 비중을 점유함.
- 세계지역별 교역 비중은 EU 41.7%, 아시아-태평양 지역 32%, CIS 지역 12.1%를 기록하여(2019년 기준) 여전히 EU가 러시아의 최대 교역 지역임.

[그림 7] 러시아의 국가별 교역 비중(2019년)



자료: www.gipp.ru

[그림 8] 러시아의 지역별 교역 비중(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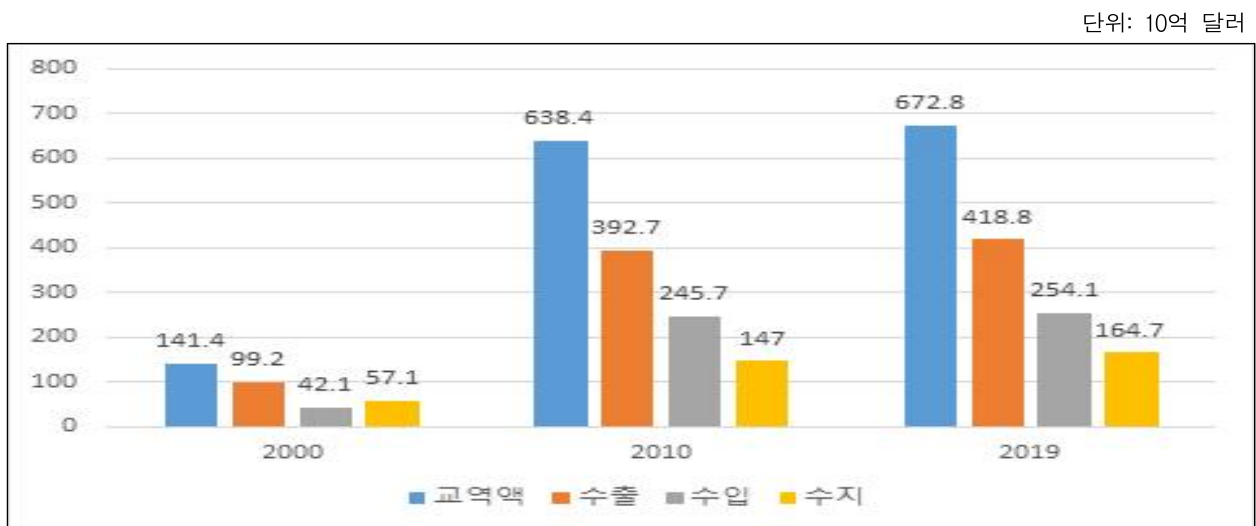
자료: www.ved.gov.ru



에너지 자원의 수출에 따른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기록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수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외교역액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3.5배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5.38% 증가에 그쳤음.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 경기침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러시아 경제성장률도 2014년 이후에는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9] 러시아의 교역(2000·2010·2019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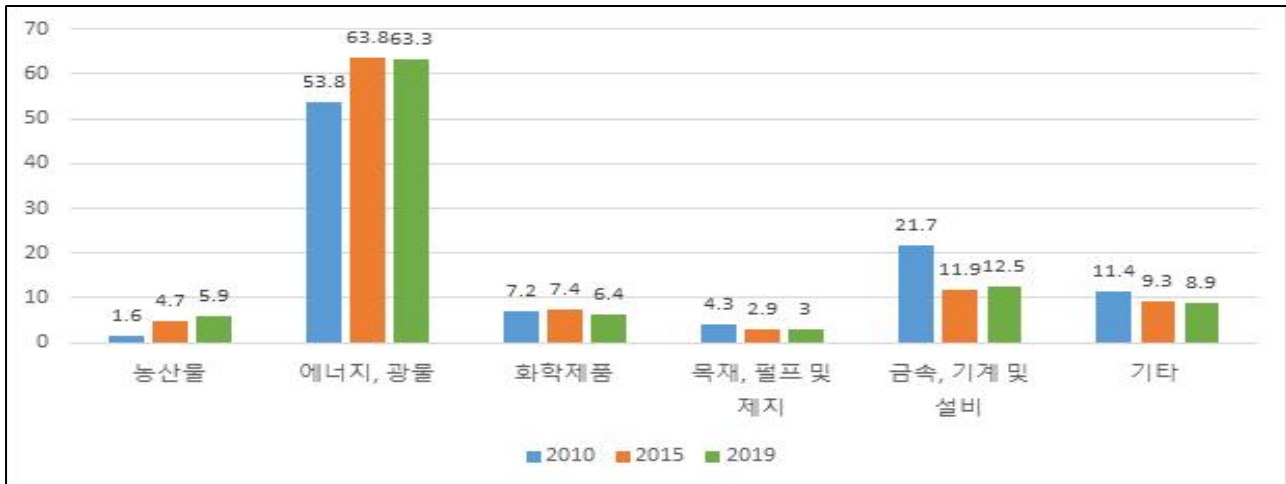
수출품에서는 에너지, 광물 부문이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속, 기계 및 설비가 높은 비중

-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으로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속, 기계 및 운송수단, 화학제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에너지 및 광물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63.3%를 기록하였으며, 금속, 기계 및 설비가 12.5%, 화학제품이 6.4%, 농산물이 5.9%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10]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2010·2015·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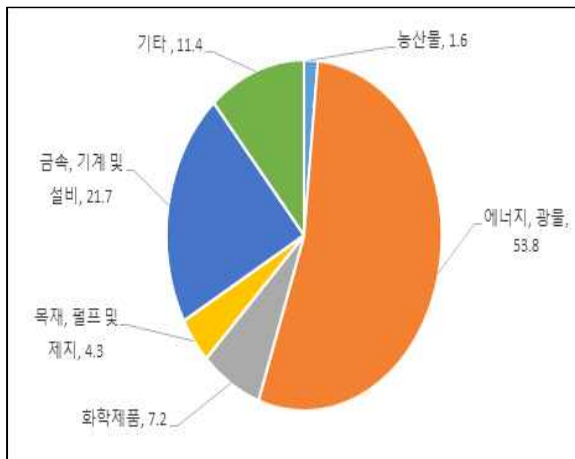


자료: 러시아통계청.

- 지난 9년 동안 러시아의 수출에서 에너지 및 광물 품목의 높은 비중은 계속 유지되고 농산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속, 기계 및 설비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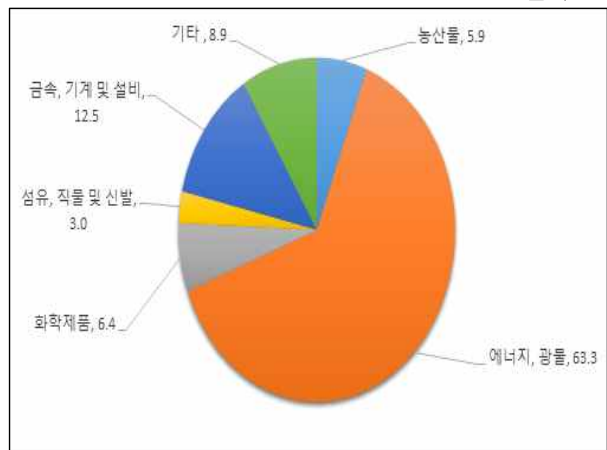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러시아통계청.

[그림 12]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2019년)

단위: %



자료: 러시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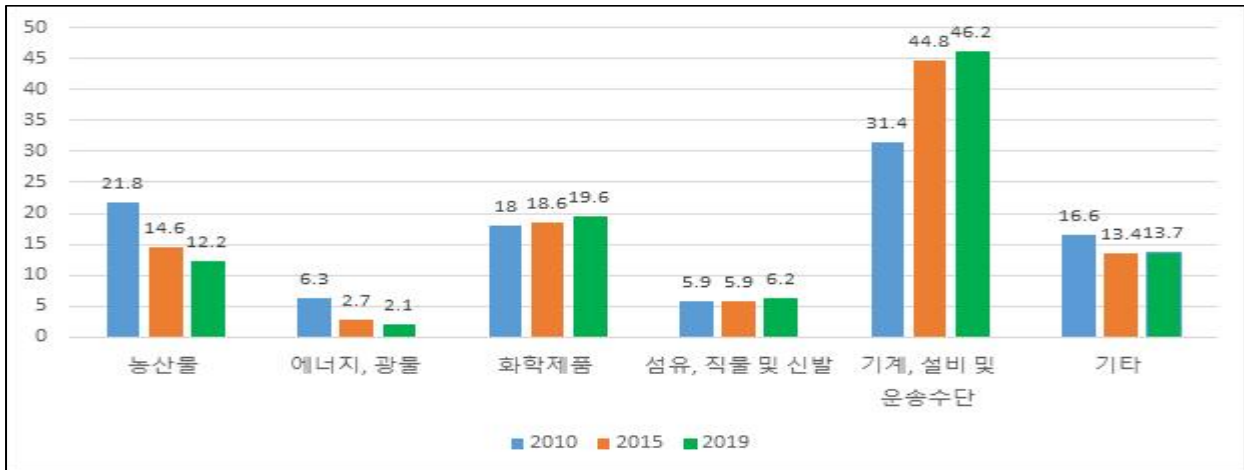
수입에서는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이 전체 수입의 약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중

- 러시아의 수입에서는 기계 및 운송수단이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화학제품, 농산물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3]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2010·2015·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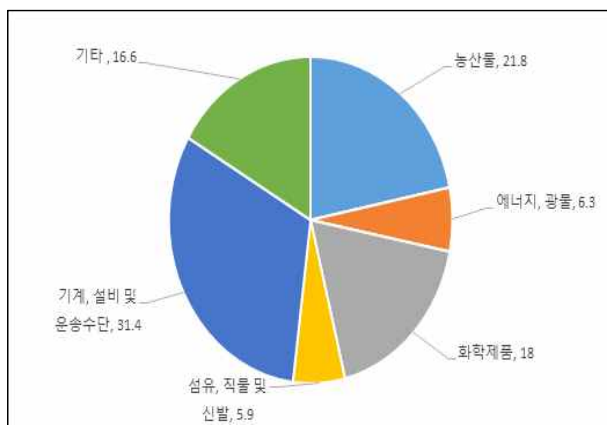


자료: 러시아통계청.

- 2019년 기준 기계 및 운송 수단이 전체 수입의 46%, 화학제품이 20%, 금속이 7%, 석유 및 신발이 6%의 비중을 기록함.
- 지난 9년 동안 러시아의 수입에서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산물과 에너지 및 광물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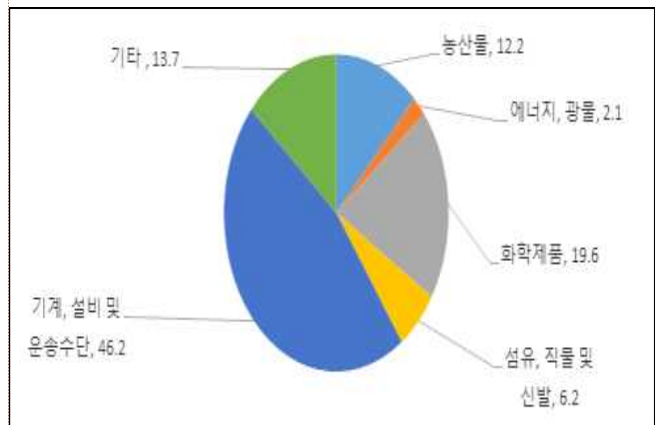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러시아통계청.

[그림 15]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2019년)

단위: %



자료: 러시아통계청.

러시아의 WTO 가입과 대외경제협력

- [WTO 가입] 러시아는 1993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18년 간의 오랜 협상 끝



에 2012년 8월 WTO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 WTO 가입 후 러시아는 자동차, 제약, 화학 등의 다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인하하고 국내 농업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국과의 무역분쟁 절차에서 WTO 규정을 따르게 되었음.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WTO 가입으로 에너지, 철강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은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⁵⁾
- G20 국가들 가운데 유일한 WTO 미가입국이었던 러시아는 WTO 가입으로 경제 개방도가 상승하고 외국 기업들의 진출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CISFTA] 러시아가 가입되어 있는 CIS 회원국들 간에 FTA가 체결되어 있음.
 - 201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 등 8개국이 CIS FTA 체결에 서명하여 2012년 10월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2013년 5월 우즈베키스탄이 체결에 서명하여 2014년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음.⁶⁾
 - 현재 CIS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등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⁷⁾
- [EAEU 협력]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에서 회원국 간의 교역, 투자 등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등 5개국과 EAEU에 가입해 있음. 가입국들은 대외적으로는 단일 관세를 유지하고, 역내 교역에서는 관세를 철폐하였음. EAEU는 개발은행인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여 역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금융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EAEU는 베트남과 FTA를 체결(2015년 5월 서명, 2016년 10월 발효)하였으며, 이란, 싱가포르, 세르비아 등과는 서명 후 발효를 앞두고 있음. 이외에도 한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을 논의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러시아의 개별 FTA]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세르비아 등의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였음.

러시아와 EU 및 중국과의 교역

- [대EU 교역] 러시아의 대EU 수출품은 에너지 자원이 약 70%로 최대 비중을 점하고 있음. 대EU 수입

5) <http://vz.ru> 2019.08.22.

6)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은 참여하고 있지 않음. 또한 러시아는 2015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2016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의 CISFTA 효력을 중단시켰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도 2016년 1월부터 효력을 중단시킴.

7)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련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와의 분쟁을 겪은 조지아는 2008년 CIS를 탈퇴하였으며, 2018년에는 크림 반도 및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CIS 대표부 활동을 중단하였음.



에서는 기계류 및 자동차의 비중이 43.3%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화학제품, 기타 공산품 등이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

- EU 개별국가들 가운데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규모가 많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러시아의 주요 교역상대국임.

[표 5] 러시아의 대EU 주요 교역 품목의 수출입 비중(2009·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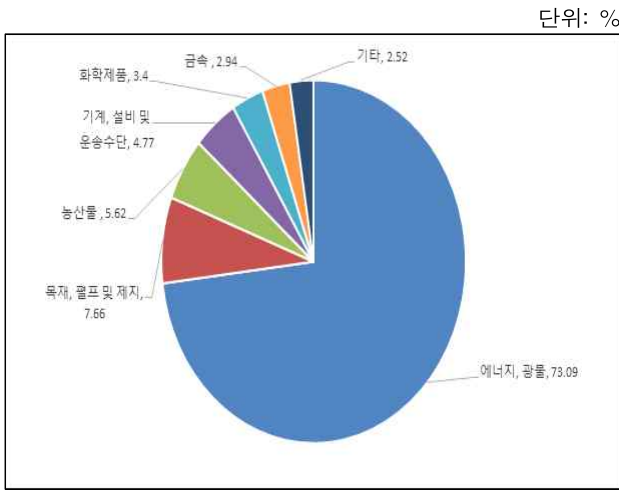
품목	2009		201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광물성 원료	74.6	0.9	68.4	0.7
화학제품	2.7	17.3	3.8	22.6
기계 및 운송장비	1.0	43.1	1.7	43.3
식품 및 음료	0.5	9.4	1.1	6.4
비식용원자재	2.1	1.7	3.3	2.2
기타 제조용품	6.7	24.9	11.4	23.4
기타 제품	12.4	2.6	10.3	0.3
전체	100	100	100	100

자료: Eurostat

- [대중국 교역] 러시아는 중국으로 연결된 송유관, 가스관을 통해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 및 광물의 수출 비중이 73.09%에 달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중국 수입에서는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이 57.04%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섬유 및 신발(10.81%), 화학제품(10.14%) 등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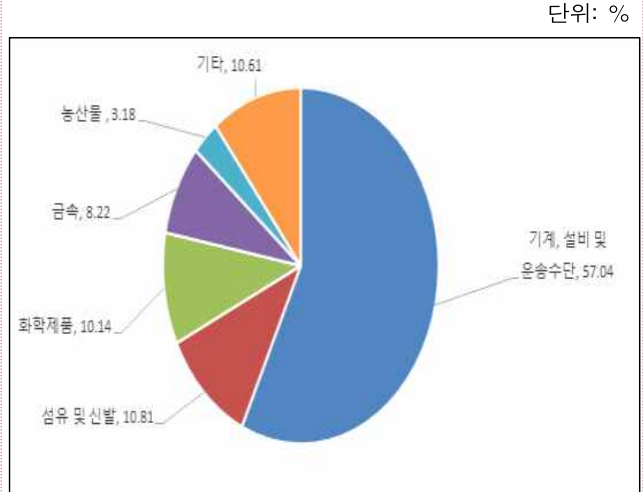


[그림 16]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2019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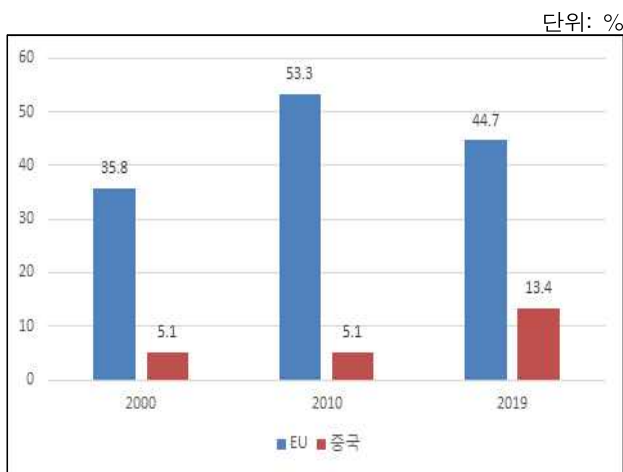
[그림 17]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 (2019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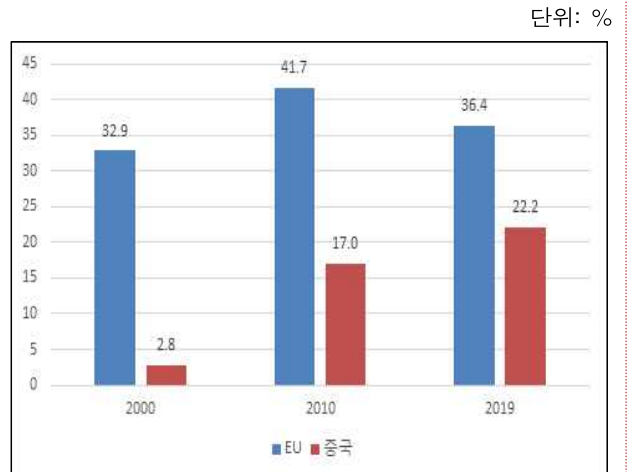
- [EU, 중국과의 교역 비중 변동] 러시아의 교역에서는 EU가 여전히 최대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아래 [그림 18], [그림 19]에서 나타나듯이, 2019년 러시아의 대EU 교역은 2010년 비교하여 러시아 전체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중국의 수출 및 수입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18] 러시아의 대EU 및 중국 수출 비중



자료: 러시아통계청.

[그림 19] 러시아의 대EU 및 중국 수입 비중



자료: 러시아통계청.



IV. 한·러 교역 확대 방안

한·러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활용한 교역 확대

- 한·러 교역에서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제조업 제품 위주의 수출을 하고,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위주의 수출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교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최근 화장품, 건설장비, 의료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향후 수출상품이 다각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유망 제조업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분석 결과 자동차, 화장품, 아연도금강판 등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20대 수출 품목에 포함된 건설장비, 타이어,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전자응용기기 등도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FTA 체결을 통한 교역 확대

- 한·러 양국이 협상 중인 서비스·투자 FT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토대를 향후 상품 FTA 체결을 추진할 수 있음.
- 2018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가 합의되었으며, 2019년 6월 20일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2020년 7월 초까지 다섯 차례의 공식 협상이 진행되었음.
- FTA 체결을 통해 의료, 물류, 관광, 유통 등 서비스 부문의 러시아 시장 진출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EAEU FTA 체결을 통해 러시아 및 EAEU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음.
- 한국과 EAEU는 2016년부터 정부 간 협의회를 통해 FTA 추진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공동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FTA 체결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2020년 EAEU와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현재 EAEU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향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가입도 예상되므로 한·EAEU FTA 체결은 한국과 유라시아 지역 간의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한·러 및 한·EAEU FTA 체결을 통해 자동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상품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⁸⁾

에너지 교역 확대

8) 정재원,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KERI Insight 20-2, 2020. 이 보고서는 한-러시아/EAEU FTA 체결이 한국의 실질 GDP 0.061%, 총수출 0.497% 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동 산유국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에너지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교역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한국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LNG 교역의 증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LNG 수입액은 2000년 38.8억 달러에서 2019년 205.7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극 지역의 LNG 개발 확대를 통해 수출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호 협력이 유망함.⁹⁾

향후 러시아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통한 교역 확대 추진

- 러시아 정부조달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활용한 수출을 고려할 수 있음.
- 러시아는 현재까지 WTO-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3년 5월 29일 WTO-GPA 옵저버 국가(Observer Status)로 승격되었으며, 2016년 8월 정식가입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향후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전망됨.¹⁰⁾
-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사례로는 ICT 부문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러시아 스베르방크에 IT 설비를 공급하였으며, 독일의 지멘스가 의료장비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¹¹⁾ 이에 따라 이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러시아의 ICT 관련 조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9)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2019 (러시아 2035 에너지 전략. 2019).

10) 양평섭 외,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8~130.

11) 코트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및 역외 CIS지역 국가별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2017. p. 15.



< 참 고 문 헌 >

김현수. 「2020 러시아 경제전망 및 수출 유망품목」 Trade Brief. 2020.1.30. 한국무역협회.

김현수·박승혁.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 및 한-러 경제협력 확대 방안」. 2018년 6월. 한국무역협회.

양평섭 외,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트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및 역외 CIS지역 국가별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2017.

정재원,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KERI Insight 20-2. 2020.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2019 (러시아 2035 에너지 전략. 2019).

러시아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www.autonews.ru> 2020년 8월 26일.

<http://vz.ru> 2019.08.22.

<https://www.autostat.ru>

Eurostat

e-cis.info

eaunion.org

www.gipp.ru

www.ved.gov.ru



<https://www.hyundai.com>